

행사안내

초 청 장

제1부

창립 1주년 기념행사

먹거리를 생각하는 모임

사회 : 이봉상(IMI부원장)

총의 농약문제 태강면 토론회

인사 : 윤태열(IMI원장, 경남대학교수)

축사 : 종민배(창원시장)

박명숙(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축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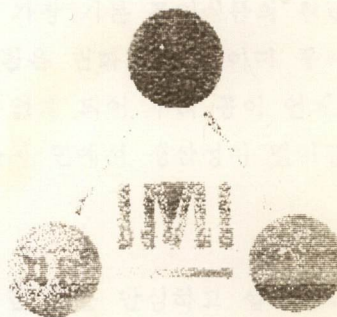
제2부

제19차 먹거리문화 포럼

진행 : 서계옥(목포대학교 사투처장)

특강 : 최진호(삼일공공대표, 부경대학교수)

농약을 정확하게 알자 : 이혜숙(먹거리모임 사무국장)



제1주제 총 농약으로부터 안전한가?

발표자 : 민병운(공동대표, 경남대학교수)

토론자 : 오양호(부산대학교수)

이유순(창원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최진호(IMI전일연구원, 의학박사)

• 일시 : 1998. 6. 11 (목) 15:00

• 장소 : 블루존전당

• 주최 : (사)국제종합경영연구원(IMI)
먹거리를 생각하는 모임 경남본부

• 후원 : 창원시, KBS, MBC

제2주제 경남지역 농업법인체의 현황 및 과제

발표자 : 전하성(공동대표, 경남대학교수)

토론자 : 미정

1998년 6월 11일

모시는 말씀

대두 즉, 콩은 오늘날 가장 값이 싼 단백질과 지방질 원이므로 적은 양의 콩으로 쌀의 영양적 취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영양면의 의미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소중한 작물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콩은 보잘 것 없는 잡곡의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동안 의지해 온 중요한 곡식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동물성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이로 인한 성인병은 이제 일반 서민에까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성 식품만으로 쌀의 부족한 영양을 보완한다고 할 때 그 경제적 부담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콩은 간장·된장·고추장 등 우리 음식의 가장 기본 조미식품의 원료인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공업의 발달로 식생활은 변화되었고, 이미 콩의 생산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수입을 하지 않으면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어 우리 콩이 언제부터인가 수입 콩에 밀려서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단지, 부가가치 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경제적 측면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식생활에서 우리 콩을 대체하여 과연 수입 콩을 안심하고 섭취해도 되는지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콩과 수입 콩의 영양·오염 실태를 조사해봄으로써 국민 경제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이러한 높은 우리 콩의 자급자족 능력 배양을 위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독단의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의지에서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한 집단 사고의 장을 마련하였사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6월 11일

먹거리를 생각하는 모임

상임공동대표 최 진 호

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윤 대 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 제1차 먹거리 문화 포럼: 1995년 3월 31일
주제: 건강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주최발표: 홍운화 박사(서울대 명예교수)
- 제2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5년 4월 25일
주제: 고염제가 수입과일에 부각되고 있다
주최발표: 민병용 교수(경남대 환경보호학과)
- 제3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5년 6월 13일
주제: 농약파해, 유기농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주최발표: 장진영 부회장(한국유기농업협회)
- 제4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5년 8월 9일
주제: 우리 농산물의 유통 문제에 문제없나?
주최발표: 허신형원장(한국 소비자 보호원, 전남수산부장관)
- 제5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5년 11월 4일
주제: 축적없는 아이로 키울수 없다
주최발표: 박경화 원장(임산기독병원)
- 제6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6년 1월 10일
주제: 유류, 오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주최발표: 박후근 회장(한국수산물, 수산포럼)
- 제7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6년 3월 29일
주제: 우리의 음식문화에 문제없나?
특강: 정영석교수(서울대의대)
주최발표: 황영철교수(부산수산대식물생명과학과)
- 제8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6년 5월 22일
주제: 우리의 식량안보에 이상없나?
주최발표: 구천수교수(단국대농업경제학과)
- 제9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6년 8월 7일
주제: 보신탄, 현실을 무시할 것인가?
주최발표: 김원규교수(인제대국어국문학과)
- 제10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6년 10월 22일
주제: 낙동강수질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기조발표: 권철현의원(신한국당국회의원)
주최발표: 이진애교수(인제대환경학과)
- 제11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6년 12월 5일
주제: 우리의식단, 이대로는 안된다
주최발표: 최민경원장(최민경요리학원)
- 제12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7년 1월 15일
주제: 양주수입, 이대로는 안된다
주최발표: 박상현교수(서울대의대)
- 제13차 먹거리문화포럼: 1997년 4월 25일
주제: 전통차에는 어떤약리 효능이 있는가?
특강: 현대생활과 차문화
허충순회장(정향회)
주최발표: 이상설명예교수(서울대, 학술원회원)
- 제 14 먹거리문화 포럼: 1997년 6월 12일
먹거리운동 경남지역 본부 창립 심포지엄
주제: 유해물질 다이옥신과 인간
주최발표: 윤다소장(아름이후라 환경 과학 연구소)
- 제15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6년 7월 1일
주제: 식품의 개방화 추세와 식품감시 체계
주최발표: 신영출과장(부산식품의약품식품감시과)
- 제16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7년 10월 7일
주제: 공포의 0-157을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주최발표: 장동석교수(부경대식품공학과)
- 제17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8년 1월 8일
주제: 우리의 식량안보, 이대로는 안된다
주최발표: 최진호교수(부경대식물생명과학과)
- 제18차 먹거리문화 포럼: 1998년 4월 7일
주제: 우리의 과실들로, 농약으로부터 안전한가?
주최발표: 민병용교수(경남대환경보호학과)

9.8대

198.6.11 3:00
창원

IMI 창립 1주년과 제 19차 먹거리포럼 개최에 즈음한

축사요약

박 영 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사랑의 실천〉을 설립목적과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는 국제종합경영연구원(IMI)의 창립 1주년을 축하하며 동시에 올바른 먹거리문화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먹거리를 생각하는 모임 경남본부의 우리의 중요한 식품인 〈콩〉을 해부하는 제19차 포럼 개최를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절로 나는 것은 근대를 지배해온 인간 개개인의 이기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팽배로 죽음의 문화로 치닫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와 기업공동체의 회복에 자신을 헌신함으로 생명의 문화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 움직임이 우리가 살고있는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을 감동하게 하기 때문이다.

국제종합경영연구원이 오늘의 당면문제 해결을 유관업무간의 토론회서비스를 통해 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공감한다. 그 이유는 오늘의 우리의 사회문제는 어느 것 하나 통합적으로 대응되지 않아 한쪽에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IMF 한파가 몰고 온 경제위기 극복의 명분으로 경제기반인 환경을 마구 훼손하고 있는 오늘의 사태가 바로 그런 현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하나의 예이다. IMF라는 경제위기극복에 급급한 나머지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밀려오고 있는 그린라운드(GR)의 대비마저 망각하고 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두 세기를 걸쳐 사는 세대로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열 것인가 하는 과제가 부과되어 있다.

세계는 눈앞에 다가온 새로운 100년을 ①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 하여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의 세기로 ②국가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화와 국제기구, 경제기구, 민간기구 등의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③20세기가 경제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사람들은 삶에 대한 욕구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늘의 역사는 낡은 세계질서가 한계에 봉착해 붕괴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는 새로운 시기에 처해있다. 역사의 전환점인 21세기의 인류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인류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먹거리를 생각하는 모임과 국제종합경영연구원이 설정하고 있는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열정적인 과제수행은 지속 가능한 경남지역을 만들뿐만 아니라 바로 지속 가능한 인류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수행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그 성취를 확신한다.

그러한 확신의 근거는 내가 알고 있는 IMI의 부원장이며 국제환경과학연구소의 소장인 민병윤 교수의 선견지명과 성실성, 꾸준성 그리고 용감성에서 비롯된다.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IMI이면 능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

최근 구미와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환경호르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뒤늦게나마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1996년에 민병윤 교수가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가 주최했던 세미나에서 다이옥신과 PCBs 등의 문제를 발표했을 때만해도 국립환경연구원을 필두로 하는 정부측에서 만들어낸 공포분위기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당시 민교수가 보여준 의연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IMI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진솔하게 문제에 접근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큰 기대를 가지고 IMI의 활동추진을 지켜보고 싶은 것은 생명의 문화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금 IMI의 창립 1주년과 제19차 먹거리문화포럼을 축하하며 장족의 발전을 기원한다.